

계영희 (고신대학교)

Homepage를 이용한 수학과 강의의 모형.

- 16세기 회화와 사영기하와의 관계 -

중세의 암흑기를 지나자 화가들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 사실적이고 입체감나도록 표현하고자 했다. 그 결과 화가들은 원근법을 도입하였고 사영의 원리를 연구하게 되었으며 캔버스에 무한원점을 첨가하게 되었다.

한편, 수학자들은 유클리드 평면위에 무한원점을 첨가하여 사영평면을 만들었고 나아가 사영기하학으로 발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16세기의 거장인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의 명화를 감상하여 이 들 작품속에서 수학적 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지도제작자들은 투시의 원리를 적용하여 평사도법, 심사도법, 정사도법 등으로 지도를 제작하게 되었다. 즉, 시대정신에 따른 수학과 미술, 특히 사영기하와 16세기 회화와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종명 (관동대학교)

근대 수학교육의 역사에 나타난 수학교육관

근대 수학교육의 역사에 나타난 수학교육의 사상을 조사하였다. 수학교육의 근대화운동과 현대화운동, 기초회복운동, 문제해결시대로 이어지는 수학교육운동에서 교육의 발전과 수학교육의 철학적 근거와 수학교육관을 조망하였다.

또한 세계화와 정보화시대인 21세기에 대비하는 바람직한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관을 생각해 보았다.